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 양*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주 일 예 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이달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순중(T국)

만왕의 왕 내 주께서(찬 151)

다같이

Born again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인도자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다같이

사도행전 15:36-16:5

김원재목사

목자 되신 주님

샤마임찬양대

“더 굳건해지고”

설교자

교회의 참된 터는(찬 600)

다같이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예배당 건축은 거의 막바지입니다. 관공서의 진행이 느려져 입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입당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3. 다음 주일(4/25) 예배 후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4. 뉴욕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유방암 무료 검진과 치매 무료 검진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 사무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6.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7.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는 것이다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알렉산더 푸시킨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러시아어로 쓰여진 것이 원문이지만,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것을 접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문 번역판 시를 보고 한글 번역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번역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번역을 참고하고, 영문 번역을 기준으로 재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러시아어를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알렉산더 푸시킨]

삶이 때로 당신을 기만할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우울한 날일지라도
믿으세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왜 당신은 슬퍼하세요?
그(슬픈) 마음으로 미래를 살아가면
받게 될 선물은 우울함(암흑) 뿐인 것을...
모든 것은 흘러가고 떠나갑니다
그러곤 언젠가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삶 자체는 그 누구도 기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그리고 힘든 삶에 이유를 찾고 싶은 마음에 시인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잘못되고 부진한 이유를 모두 자신이 아닌 배우자 탓, 남탓, 세상 탓하는 사람들은 잘되든, 잘되지 않든 이런 삶의 태도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영원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문제가 없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이유가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는 것을 먼저 원하십니다.